

실�크로드와 패션의 길: 페르시아에서 신라까지



강사: **장영수** 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미술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와 경주대학교 실�크로드 연구원 원장을 거쳐 현재 경주대학교 문화재학전공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실�크로드 미술사가 주 전공이며 실�크로드 미술품을 분석하여 실�크로드 복식연구를 통한 문명교류사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아케메네스 조공도에 묘사된 복식연구」, 「페르시아 파르티아 남자복식연구」, 「틸라테페 유물의 복식분석을 통해 본 쿠산왕조 문화의 다양성」 외 30여편의 논문이 있다.

패션은 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요인을 표현하는 문화적 표상(表象)이다. 실�크로드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과 미술품들에 묘사된 형상을 분석하여 실�크로드 패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부처의 의인화는 실�크로드에서 중간무역으로 막강한 부를 축적했던 쿠산왕조 초기 인도에서 발생했다.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불상의 선적인 주름이 형식화된 특징 등은 그레코-로만 양식이 파르티아를 거쳐 북서 인도에까지 영향을 주어 나타난 결과이다. 불상의 옷 외에도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옷인 토가(Toga) 형의 주름잡힌 옷을 걸친 중앙아시아의 남자 조각상에서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주름 장식의 스타일이 나타난다. 그레코-로만 스타일을 넘어 페르시아 파르티아의 복장인 튜닉과 바지 스타일도 중앙아시아에서 관찰되곤 한다. 또한 페르시아 사산왕조 텍스타일에서 흥행했던 연주문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신라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고, 이는 기와의 무늬로도 나타나고 있다.

패션의 연구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며 실증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특히 문헌 자료가 부족한 고대 패션을 연구할 때는 눈에 보이는 실증적 자료인 고대 유물이나 미술품들에 대한 분석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